



미디어/엔터

휴먼 리스크 프리? 버추얼 아티스트

미디어/엔터 이현지 hjlee1@ / RA 이찬영 cy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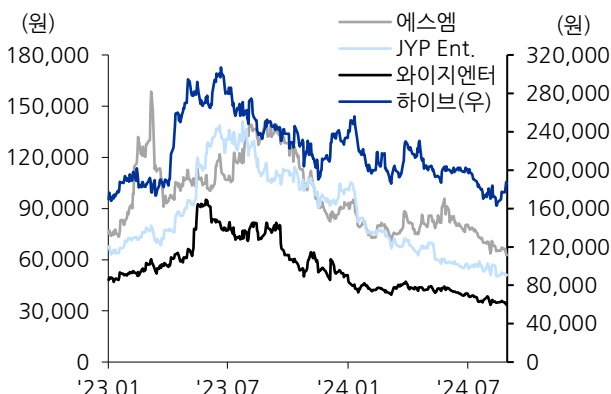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엔터

중국향 앨범 수출 데이터가 역성장하기 시작한 작년 6월 이후로 엔터 주가는 지금까지 회복을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 멀티플은 이미 역사적 하단(12MF PER 하이브 25배, 에스엠 12배, JYP Ent. 14배, 와이지엔터 14배)에 위치해 있음에도 지속되는 실적 부진과 추가 성장 모멘텀 부재,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매출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앨범의 역성장은 섹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설상가상으로 예측 불가의 휴먼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섹터 관심 빠르게 식어가는 중. 특히 하이브-어도어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 주가는 하루 만에 7.8% 하락했으며,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사건 이후 6.3%, NCT 태일 성범죄 피소 사건으로 에스엠 주가는 4.9% 하락함. 사람이 중요한 만큼, 휴먼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음.

버추얼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런데..

8월은 휴먼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버추얼에서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데뷔가 이어진 달이기도 함. 이미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는 플레이브의 뒤를 이어 8월에는 에이팟츠(AFOTS), 이오닛(AEONIT)에 이어 9월 말에는 웹툰 캐릭터로 구성된 버추얼 보이그룹 스페이즈(Sphaze)가 데뷔 예정. 9/10 일에는 SM의 버추얼 아티스트 나비스(nævis)가 데뷔 예정으로 수익성 증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으나 대형사 중심의 새로운 시도가 산업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이 될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섹터 내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인 데뷔, 위버스 수익화 시작 등 다양한 모멘텀이 몰려 있는 4분기를 기점으로 장기적 시각으로 비중확대 추천

엔터 4사 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한주간 주요 뉴스

플레이브 앙코르 콘서트 전석 매진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의 앙코르 팬 콘서트 선예매 티켓은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됨

르세라핌 미니 4집 초동 약 68만장 기록

미니 4집의 초동 판매량은 67.7만장으로 전작 대비 약 46% 감소

8월 티빙 MAU 783만명 기록

티빙 8월 MAU는 783만명으로 작년 12월 대비 약 200만명 증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을 비롯한 주요 OTT 중 유일하게 MAU 성장

9월 주요 아티스트 컴백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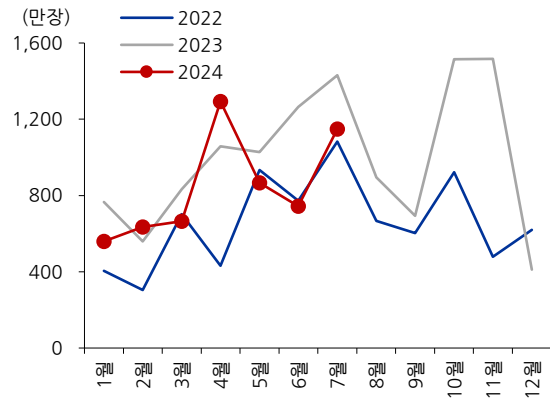
9/9 보이넥스트도어(하이브) 미니 3집, 9/10 나비스(SM) 디지털 싱글, 9/24 NCT WISH(SM) 미니 1집

9/10 데뷔 예정인 SM의 버추얼 아티스트 나비스(næv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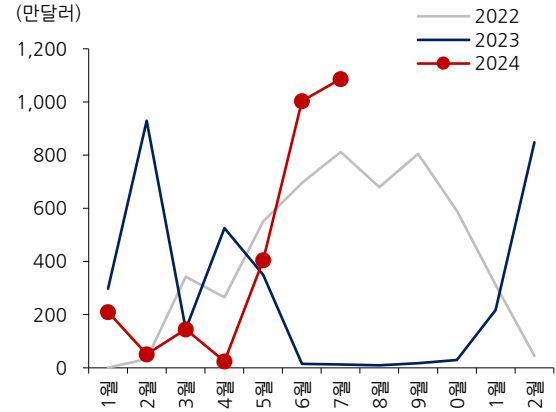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1. 월별 앨범 판매량 비교



자료: 씨클차트,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중국향 피지컬 앨범 수출 추이



자료: trass,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에이팻츠(AFOTS)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이오닛(AEONIT)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스페이즈(Sphaze)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6. 나이비스(noevis)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7. 글로벌 기업들 밸류에이션 테이블

(백만달러, 배)	기업명	시가총액	Fwd 12M			추가수익률					
			PER	PSR	PBR	1w	1M	6M	1Y	YTD	
미디어	미국										
	넷플릭스	289,866	32.3	7.5	13.1	-3.7%	6.5%	11.7%	52.5%	38.7%	
	월트디즈니	160,212	17.4	1.8	1.7	-2.3%	2.5%	-19.9%	8.3%	-2.2%	
	컴캐스트	153,816	9.3	1.3	1.9	0.4%	1.6%	-6.7%	-11.8%	-9.4%	
	스포티파이	65,076	43.9	3.7	15.5	-5.5%	-4.7%	24.9%	108.4%	72.5%	
	WBD	17,899	N/A	0.4	0.5	-6.9%	3.9%	-16.4%	-35.5%	-35.9%	
	폭스	17,737	10.9	1.2	1.7	-3.2%	1.9%	38.8%	27.7%	35.0%	
	엔데버그룹 홀딩스	13,033	12.7	1.8	4.0	0.5%	0.2%	12.9%	26.6%	16.4%	
	파라마운트 글로벌	7,346	7.5	0.2	0.4	-1.5%	0.1%	-5.7%	-24.5%	-30.3%	
	라이온스 게이트	1,679	8.8	0.4	124.1	-1.2%	-10.2%	-16.2%	-5.7%	-29.5%	
	유럽										
	비방디	11,465	12.6	0.6	0.6	-0.6%	6.8%	0.7%	23.1%	4.2%	
	ITV	4,067	8.9	0.9	1.8	-0.7%	1.2%	12.0%	11.3%	24.8%	
	일본										
	소니 그룹	113,432	15.9	0.0	2.0	-7.7%	5.5%	0.2%	5.1%	-3.1%	
	토에이 애니메이션	4,520	40.0	7.2	4.7	-1.1%	10.0%	5.9%	13.8%	-18.6%	
	가도카와	3,017	47.6	0.0	2.1	5.2%	20.5%	8.2%	-6.6%	6.1%	
Oricon Inc	89	10.6	0.0	2.2	2.3%	9.7%	-1.1%	7.5%	15.1%		
한국											
씨제이이엔엠	1,239	35.2	0.3	0.5	6.5%	-2.4%	3.5%	30.0%	5.1%		
스튜디오드래곤	801	24.9	1.6	1.5	-2.3%	0.0%	-18.8%	-29.8%	-30.5%		
SBS	210	9.6	0.0	0.3	-1.4%	-4.2%	-36.9%	-42.1%	-47.9%		
콘텐츠리중앙	136	N/A	0.2	5.5	-7.4%	5.2%	-25.3%	-38.4%	-37.7%		
엔터	미국										
	UMG	47,288	18.6	3.7	15.3	-1.0%	5.7%	-12.5%	-0.4%	-9.3%	
	라이브 네이션	22,004	44.7	0.9	20.8	-2.9%	2.8%	-5.0%	17.1%	1.3%	
	워너 뮤직 그룹	14,476	20.0	2.3	27.1	-2.3%	-1.4%	-17.6%	-14.9%	-21.9%	
	Vivid Seats Inc	986	20.2	1.2	9.8	1.9%	29.5%	-15.2%	-31.5%	-25.0%	
	한국										
	하이브	5,117	22.0	3.1	2.3	-8.2%	-4.2%	-15.2%	-32.8%	-29.3%	
	제이와이피엔터	1,168	13.5	2.7	3.6	-12.9%	-22.1%	-34.9%	-59.0%	-56.4%	
	에스엠엔터테인먼트	999	13.6	1.3	1.9	-10.0%	-16.6%	-22.2%	-57.2%	-38.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24	34.5	1.4	1.2	-9.8%	-13.8%	-24.7%	-60.1%	-40.1%	
광고	미국										
	트레이드 데스크	48,824	63.9	20.0	15.3	-5.0%	0.0%	21.7%	18.4%	38.0%	
	코그니전트	37,734	16.1	1.9	2.7	-2.1%	2.3%	-0.8%	6.7%	0.8%	
	옴니콤 그룹	19,350	12.2	1.2	5.3	-1.5%	6.0%	7.9%	25.3%	14.3%	
	인터퍼블릭 그룹	11,666	10.9	1.2	3.1	-4.8%	2.1%	-3.7%	-2.2%	-4.8%	
	유럽										
	퍼블리시스 그룹	26,853	13.7	1.8	2.4	-2.8%	5.2%	-0.6%	30.6%	14.1%	
	WPP	10,434	8.2	0.6	2.0	2.5%	9.0%	4.8%	-2.7%	-1.8%	
	일본										
	덴츠그룹	8,094	13.0	0.8	1.2	-6.0%	11.2%	6.2%	-0.7%	18.5%	
	한국										
	제일기획	1,590	9.0	0.5	1.4	1.1%	8.6%	3.1%	-3.2%	-2.5%	
이노션	571	7.3	0.3	0.8	-2.4%	2.4%	-11.8%	-11.0%	-10.4%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